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이언경

감수 : 최나영환 담당자 : 권보배 전화번호 : 051-797-4774 E-mail : chnayoung@kmi.re.kr / b2kwon@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2022년 글로벌 상품·서비스 무역량,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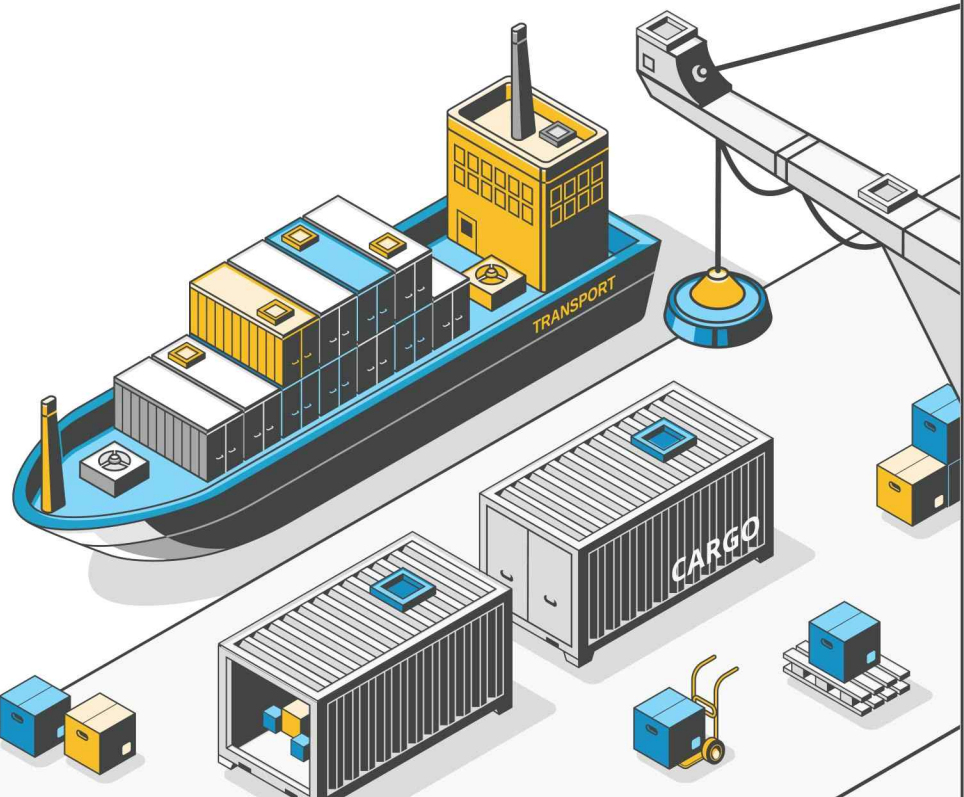
- 인도, 화물전용 철로 개설
- ONE, 인도양-지중해 서비스(IOM) 개시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 찰스턴항, bridge-raising 프로젝트 실시
- 파나마운하 통항 제한에 따른 Lázaro Cárdenas항 입항 증가

● 공지사항

- “국제물류 정보포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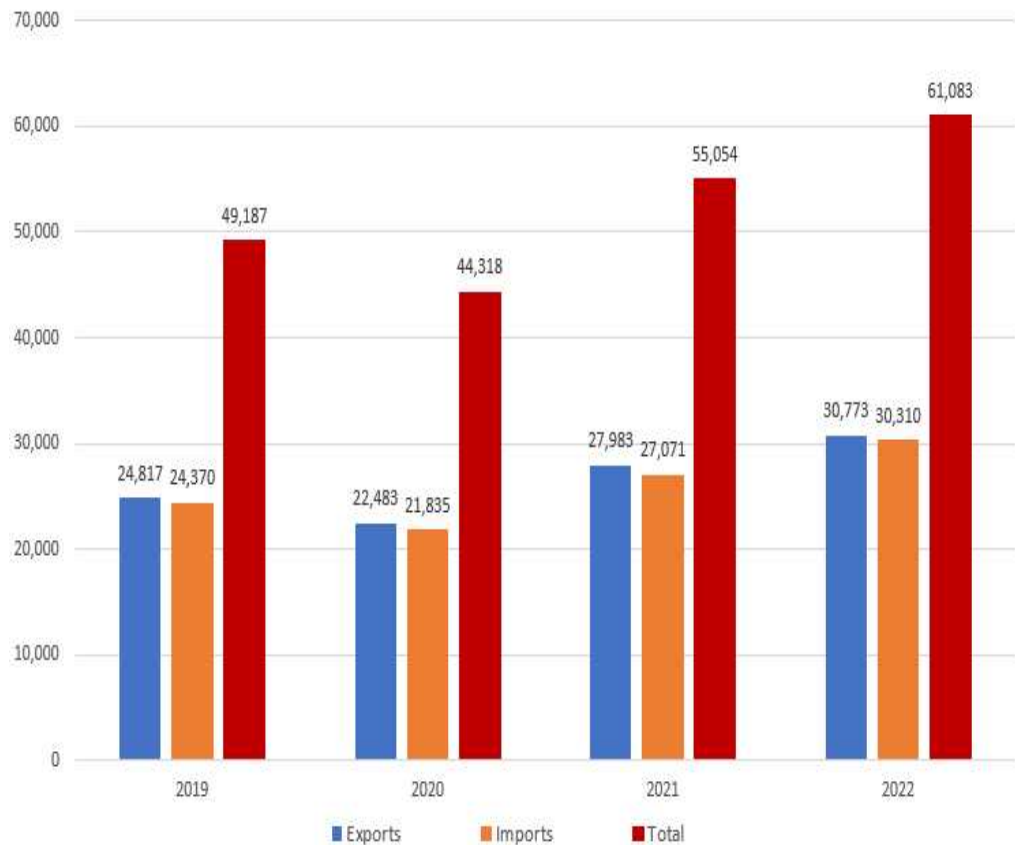
2022년 글로벌 상품·서비스 무역량,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무역량이 감소했으나,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 World Bank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무역량은 약 61조 830억(수출 30조 7,730억, 수입 30조 3,100억) 달러로 2021년도 약 55조 540억 달러 대비 약 11% 증가함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무역량은 44조 3,180억이고, 2021년에는 24.6%가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감소함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무역량(2019~2022년)

(단위 : 십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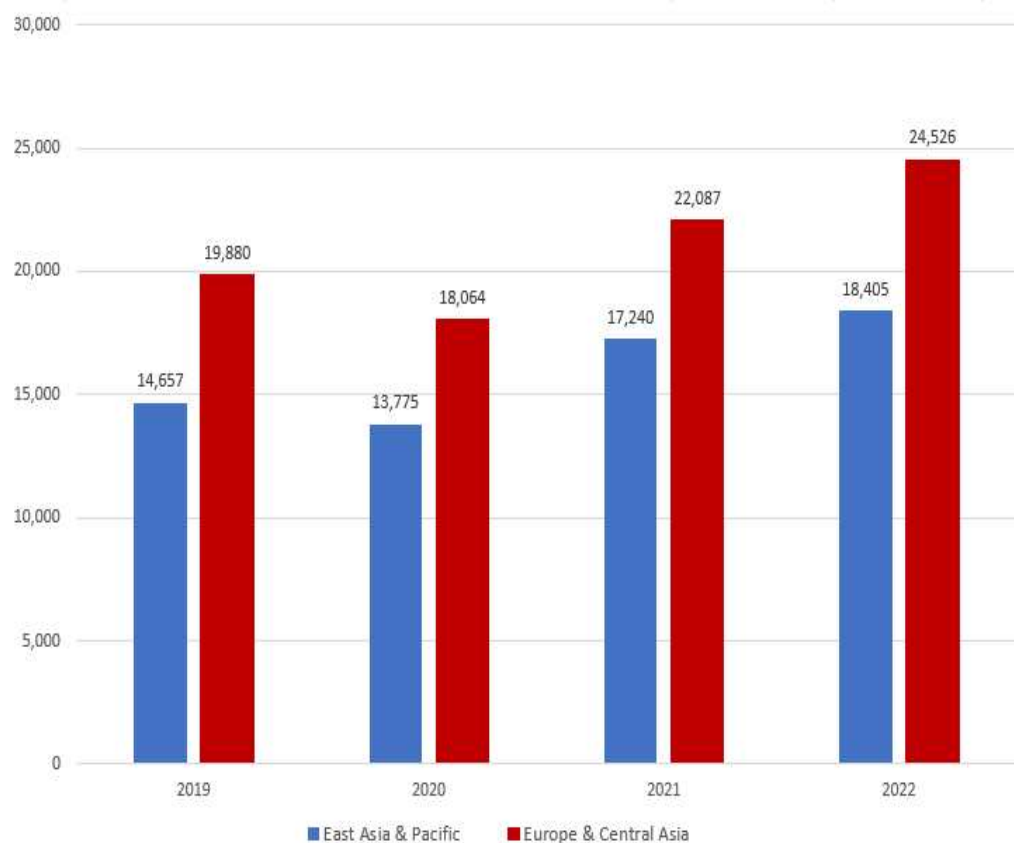
자료 : www.data.worldbank.org(검색일 : 2023.10.31.)

▶ 주요 지역별 무역량도 글로벌 무역량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남

-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우 2022년 무역량은 약 18조 4,050억(수출 9조 6,570억, 수입 8조 7,480억) 달러로 2021년도 약 17조 2,400억 달러 대비 약 6.8% 증가함
- 유럽 및 중동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도 2022년 무역량이 약 24조 5,260억(수출 12조 5,780억, 수입 11조 9,480억) 달러로 2021년도 약 22조 870억 달러 대비 약 11% 증가함

주요 지역별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무역량(2019-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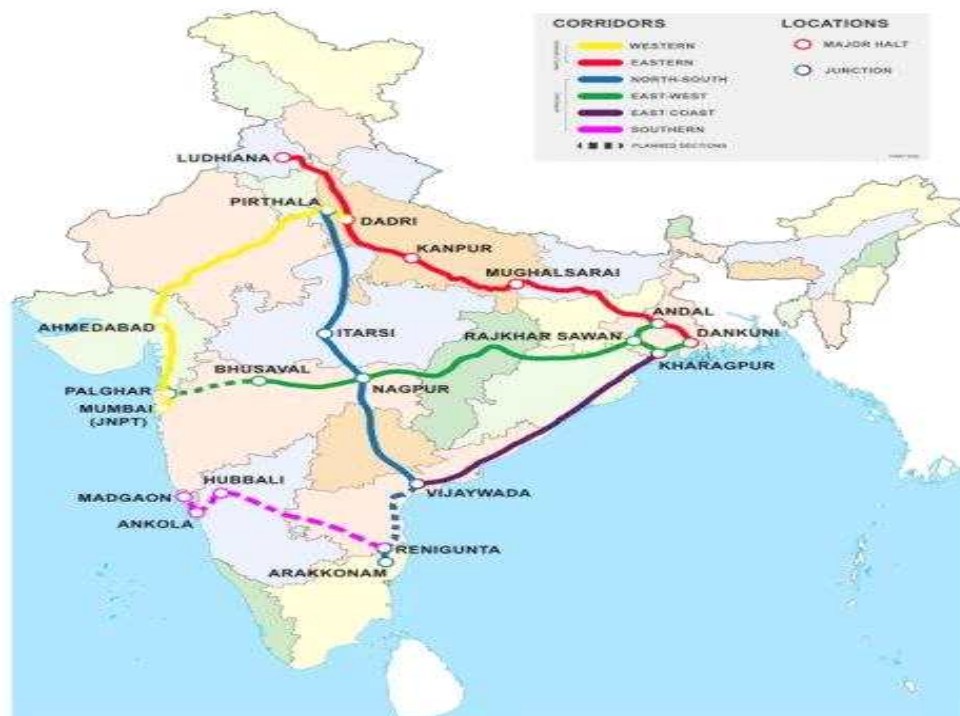
(단위 : 십 억 달러)

자료 : www.data.worldbank.org(검색일 : 2023.10.31.)참고자료 : www.data.worldbank.org(검색일 : 2023.10.31.)

인도, 화물전용 철로 개설

- ▶ 인도 철도청은 북동부를 횡단하는 1,337Km 길이의 동부전용 화물철로(EDFC: Ea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를 개통함
 - 본 노선의 첫 번째 서비스는 11월 1일에 개시되고, 편자브와 비하르 간 하루 250대의 화물 열차가 운영될 예정임
 - Ravindra Kumar Jain DFCCIL(Dedicated Freight Corridor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전무이사는 개통하는 철로는 인도 석탄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프로젝트 비용은 7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말함
- ▶ 동부전용 화물철로 건설은 2020년에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음
 -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일부 구간에는 하루 약 140대의 화물열차가 운행되었음
- ▶ 특히, 우타르 프라데시, 편자브, 하리아나 및 라자스탄 지역에 위치한 화력 발전소는 주로 석탄을 사용하므로 동 철로를 사용함으로써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도 화물열차 전용 네트워크



자료 : www.railfreight.com(검색일 : 2023.10.18.)

- 서부전용 화물철로(WDFC: Western Dedicated Freight Corridor)구간은 바이타르나-JNPT 사이의 109k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내년 3월경 완공될 예정임

 - 현재 동 철로에서 가장 긴 구간인 구자라트의 다드리와 사난드 사이(938km)가 8월에 운영을 시작해 배후지에서 인도 서부항까지 화물 운송할 수 있음
 - 바이타르나-JNPT 구간은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여객 열차와 화물열차가 같은 선로를 사용하고 있어 노선 정체로 인해 화물운송이 늦어지고 있음

 - 인도는 화물열차보다 여객열차의 우선권이 높기 때문에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화물전용 철로를 신규로 개통하고, 본 철로에는 여객열차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화물운송의 경쟁력을 높일 예정임
- 인도는 double-stack rail를 주로 배치하므로 화물운송 용량이 크고 전용 선로를 통해 더 많은 화물을 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NE, 인도양-지중해 서비스(IOM) 개시

- Ocean Network Express(ONE)는 새로운 인도양 지중해 서비스(IOM: Indian Ocean Mediterranean service)를 개시함
 - 동 서비스는 인도-파키스탄-중동을 지중해 지역과 연결하고, 고객에게 이 지역에 대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ONE에 따르면 서비스 구간은 나바세바-문드라-카라치-제다-다미에타-피레우스-제노바-발렌시아-바르셀로나-피레우스-다미에타-제다-카라치-문드라-나바세바이며, 총 운항일수는 43일임

포트 별 운항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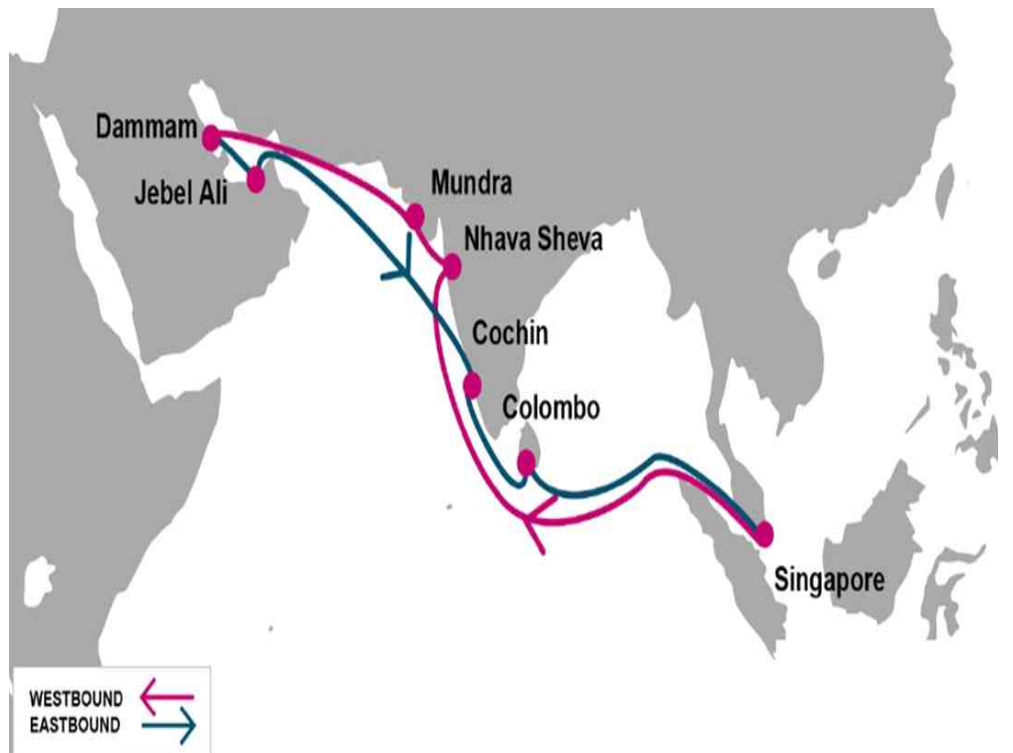
출발지	도착/출항 예정일	터미널
나바세바	일/월	Bharat Mumbai Container Terminals (PSA)
문드라	화/수	Adani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CT3)
카라치	목/목	South Asia Pakistan Terminals
제다	화/수	DP World Jeddah South Container Terminal
다미에타	금/토	Damietta Container Handling Co.
피레우스	월/월	Piraeus Container Terminal(COSCO Pier II)
제노바	목/토	PSA Genova Pra(Voltri Terminal Europe)
발렌시아	일/화	APM Terminals Valencia
바르셀로나	수/목	APM Terminals Barcelona
피레우스	일/월	Piraeus Container Terminal(COSCO Pier II)
다미에타	화/수	Damietta Container Handling Co.
제다	토/일	DP World Jeddah South Container Terminal
자라치	금/토	South Asia Pakistan Terminals
문드라	토/일	Adani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CT3)
나바세바	월/화	Bharat Mumbai Container Terminals (PSA)

자료 : www.porttechnology.org(검색일 : 2023.10.31.)

➤ 또한, ONE는 새로운 동남아시아-인도 및 걸프(SIG: Southeast Asia to India and Gulf) 항로 개설도 발표함

- 본 서비스는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을 연결하는 서비스임
- SIG의 서비스 구간은 싱가포르-나바셰바-문드라-담맘-제벨알리-코친-콜롬보-싱가포르이고, 11월 16일 싱가포르 ETA에서 개시할 예정임

SIG 노선도



자료 : www.one-line.com(검색일 : 2023.10.31.)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 www.one-line.com(검색일 : 2023.10.31.)

찰스턴항, bridge-raising 프로젝트 실시

➤ 최근 South Carolina Ports Authority는 컨테이너 처리량 확대를 위한 bridge-raising 프로젝트를 허가함

- 동 프로젝트는 Cooper River를 관통하는 Don Holt bridge를 현재 160피트(약 48.8m)에서 높이를 상향하여 Air draft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이에 맞춰 North Charleston 터미널을 현재 8,000 TEU에서 20,000 TEU급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시설로 확장할 예정임
- 이는 2022년 52피트 수심 확보를 위한 약 6억달러 규모의 Charleston Harbor Deepening Project와 더불어, 찰스턴항 내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용 능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임
- 현재 찰스턴항은 3개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작은 규모의 North Charleston 터미널 관계자는 교량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터미널 장비 업그레이드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연간 화물처리능력을 50만 TEU에서 240만 TEU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발표함
- 현재 2단계 건설이 완료된 Hugh Leatherman 터미널이 2032년 3단계가 완공되면 240만 TEU까지 화물 처리 능력이 확보되고 찰스턴항은 연간 24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터미널이 현재 1개에서 3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초대형 컨테이너선 유치를 위한 동부 항만의 유사 프로젝트도 진행중임

- 최근 공급망 변화로 인해 인도발 화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에즈를 관통하는 미동부-인도 간 컨테이너 선형 수요 증가로 인해 美 동부 항만의 대형컨테이너 접안능력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 Georgia Ports Authority 또한 인도발 컨테이너 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용하기 위해 사바나 강에 설치된 다리를 높일 것으로 발표함
- Jacksonville 항 역시 Air draft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통항로 위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음
- Rodolphe Saadé CMA CGM CEO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이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및 기타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미국의 항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선 수용을 위한 항만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초대형 컨테이너선 유치를 위한 찰스턴항 확장 진행



자료 : American Journal of Transportation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한 동부 항만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용 능력 확대 요구는 2016년 파나마운하 확장 및 서부 항만의 잦은 병목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등 주요 이슈와 맞물려 향후 동부 항만의 인프라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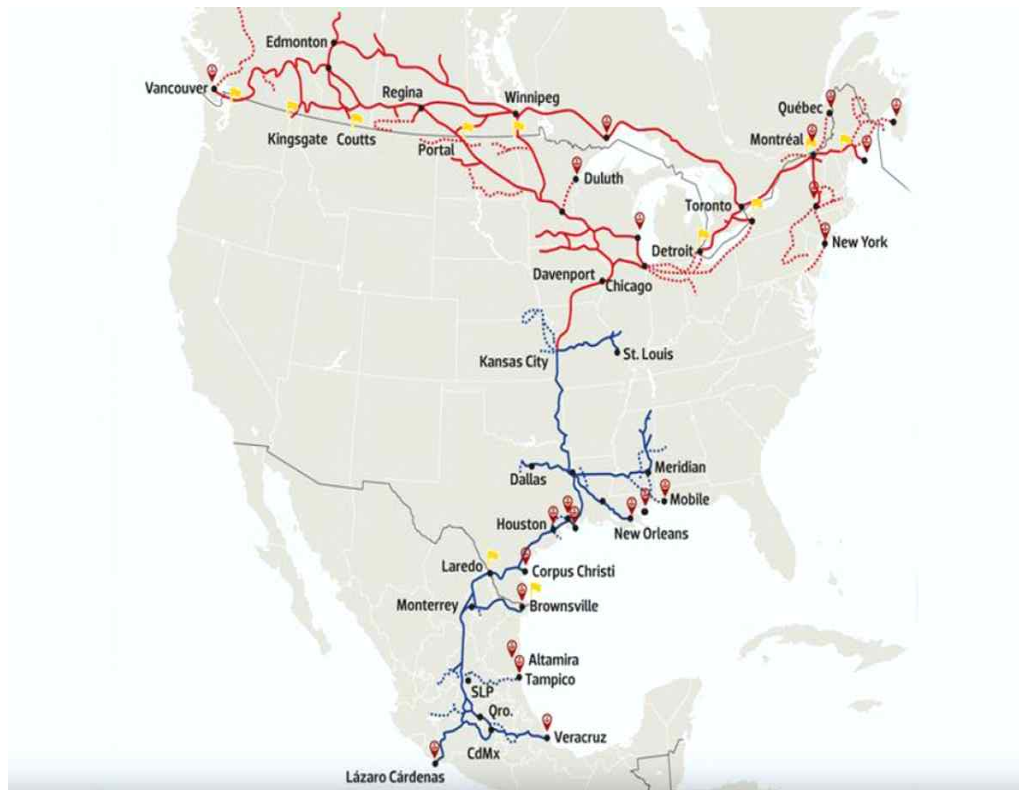
파나마운하 통항 제한에 따른 Lázaro Cárdenas항 입항 증가

- 최근 파나마의 가뭄에 따른 파나마운하 통항 제한 조치로 인해 멕시코항만인 Lázaro Cárdenas항의 선박 입항이 증가했음

 - 최근 파나마 운하의 흡수제한에 따라 미국 중서부에 기항하는 Trans-Pacific 운항 선박의 정기기항 및 임시 기항지로 멕시코의 Lázaro Cárdenas 항이 주목받고 있음
 - Lázaro Cárdenas항은 아시아-남미서해안 간 서비스 및 남미-미국 서해안 항로의 주요 기항지이나, 최근까지 태평양횡단 항로의 주요 기항지로는 선호가 낮았음
 - Zim Integrated Shipping 관계자에 따르면 동남아-중국-미국 동부를 연결하는 eCommerce Baltimore Express(ZXB)서비스에 Lázaro Cárdenas항의 직기항이 추가되는 서비스가 11월 9일 첫 기항이 시작될 예정이며, Dallas, Laredo, Kansas City 및 Chicago 등 미국 내륙도시 운송을 위한 대체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CMA CGM 또한 최근 파나마운하를 통항하는 네오파나막스의 흘수가 50ft(약 15.2m)에서 44ft(약 13.4m)까지 제한됨에 따라 태평양횡단 네트워크에 투입된 4척이 7월부터 Lightening 작업을 목적으로 Lázaro Cárdenas항에 임시 기항 중이라 밝힘
 - Rodolphe Saadé CMA CGM CEO는 멕시코를 통한 운송 방식은 아시아발 상품에 대한 니어쇼어링 및 부가가치 제조업의 출현으로 인해 미국 화주들에게 익숙한 루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함
- Lázaro Cárdenas항의 복합운송 서비스는 파나마운하 통항 제한 문제로 인해 일정 부분 대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Canadian Pacific Kansas City (CPKC)는 Lázaro Cárdenas항에서 획득한 복합운송 독점사업권을 기반으로 Hapag-Lloyd 및 Zim 등 정기선사와의 합의를 통해 미국행 복합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현재 항만을 이용하는 익명의 3자 물류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KCS 열차 선로를 막는 멕시코 트럭 운전자들 사이의 노동 불안 사례를 제외하고는 Lázaro Cárdenas항을 통한 복합운송 서비스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함
- 파나마운하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수록 멕시코 항을 통한 미국 서해안 및 태평양 연안의 복합운송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운항 중인 네오파나막스 선박들의 lightening 작업 등을 목적으로 해당 항만의 선박 기항 횟수 또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CPKC 철도 네트워크를 통한 복합운송 서비스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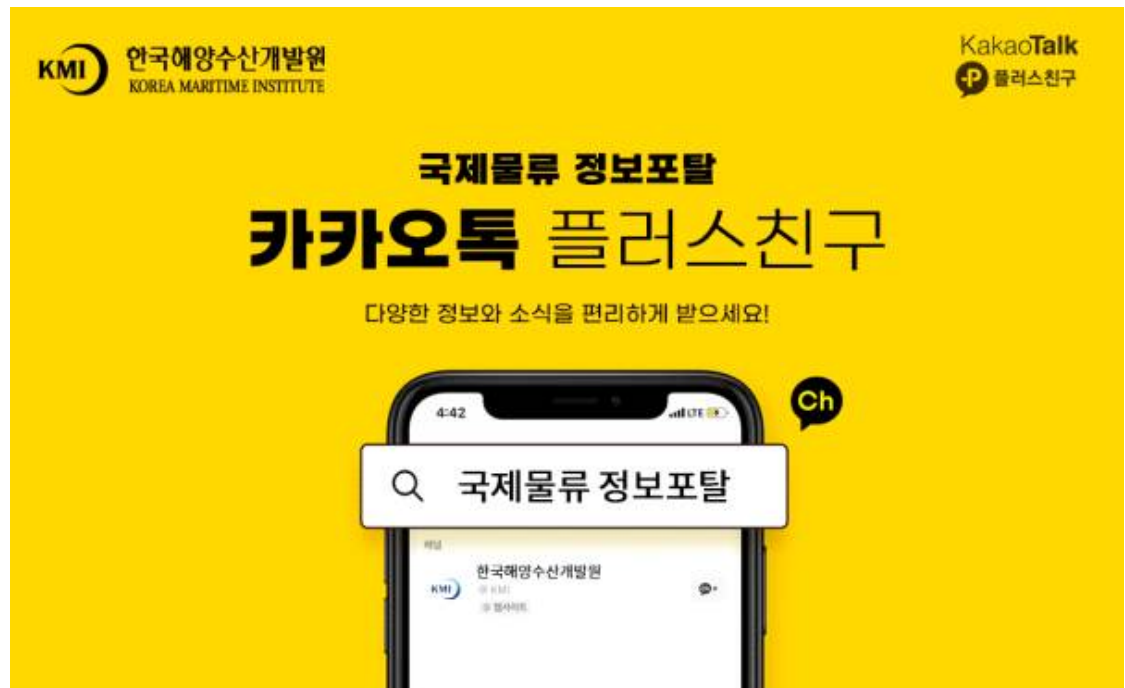
자료 : <https://netnoticias.mx>(검색일 : 2023.10.25.)

참고자료 : www.joc.com, www.puertolazarocardenas.com.mx, <https://netnoticias.mx>

(검색일: 2023.10.25.)

김대현 전문연구원
051-797-4788, kdh@kmi.re.kr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